

특집 : 도서관의 장서개발

어린이도서관 책들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을까?



최 지 혜

부평기적의도서관 관장
aiaime@hanmail.net

아이들에게 책이란 어떤 존재일까
책과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
책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

들어가는 말

요즘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로 이용자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자료를 인쇄매체인 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한다. 책은 마음을 움직여 몸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책이 자칫하면 교훈적으로 바뀌어 가르치고자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은 과연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책과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몸의 관계

‘아이들은 책과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 질문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오랫동안 책으로 뒹굴면서 무수히 고민해온 부분이다. 아이들은 실제로 도서관이 큰

가 작은가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이 그 곳에 있고, 책이 있으니 찾아와서 읽고 가곤 했다. 왜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까? 그러나 아이들은 도서관보다는 만화방이나 PC방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어른들이 가라고 하지 않아도 만화방과 PC방은 어른 몰래 찾아서라도 간다. 아이들이 만화나 게임에서 몸의 느낌으로까지 다가가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즐거움은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하고자하는 고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으로 채워져야 된다. 듀이(M. Dewey, 1877)¹⁾도 그의 책에서 이용되지 않고 서가에 늘 꽂혀있는 1급도서보다 확실하게 읽혀지는 2급도서를 사는 편이 낫다고 권고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책들은 과연 어떤 책들로 채워져야 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로만 채워져야 하는가? 그럼 과연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종류일까?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 읽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10명 중 5~6명은 만화책을 읽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만화는 아예 도서관에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몇몇 도서관들은 만화책을 없애버린 곳도 있다. 과연 그래야 할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유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없애버려야 할까. 유해하다는 판단은 어느 가치관에서 근거한 것일까? 정당한 유해일까. 이처럼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책 배치는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실제 외국학자들의 책 선정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면 참 다양하다. 듀이(M. Dewey)나 다나(J.C Dana), 하이젠(Dan C Hazen)²⁾ 등의 학설을 종합해보면 자료의 가치, 이용자의 요구, 도서관의 목적, 자료제공의 시간적 요소(환경 및 현 상황)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약간은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설명 같으면서 맞는 말인 것도 같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책들은 과연 어떤 책들일까.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일인데, 특히 신학기가 되어 <권장도서목록>이라

1)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송영희 외 4명/한국도서관협회/2005

2) Dewey, Melvil. 1877. Book Selections. Library Journal./Dana, J.C. 1896. Hear the Other Side. Libries, Dana P. 14/Hazen, Dan C. 1991. Selection: Function, Models, Theory.

〈권장도서목록〉은 누가 정할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첫째,
자료의 가치적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둘째, 이용자
의 요구에는 또 얼마나 맞을까.
셋째, 도서관의 목적에는³⁾ 넷째,
자료제공의 시간적 요소(환경)
등에는 얼마나 맞을까.

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오는 학부모들이 많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 책 다 찾아주세요”, “이 책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도서관에는 이런 책도 다 없어요?” 라고 반문하고는 이 도서관은 정말 제대로 된 책도 없구나 하는 식으로 실망과 비웃음을 남기고 다른 도서관이나 책방으로 향한다. 〈권장도서목록〉은 누가 정할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첫째, 자료의 가치적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둘째, 이용자의 요구에는 또 얼마나 맞을까. 셋째, 도서관의 목적에는³⁾ 넷째, 자료제공의 시간적 요소(환경) 등에는 얼마나 맞을까. 이제 〈권장도서목록〉을 가지고 위의 네 가지조건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가치적 측면에서 적어도 기본은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담당사서나 교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교과과정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뽑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치가 모든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실제 아이들은 개개인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이 아이들 모두에게 적합한 책은 아니다. 다만, 그 기본적 가치는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 측면에서는 어떨까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어른들의 시각이 80%는 들어가 있을 것이다. 결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은 아닐 것이다. 실제 우리도서관 이용자들을 보면 거의 70% 이상은 아이 책을 그 부모들이 빌려 간다. 나는 가끔 사서데스크에서 책을 빌려주면서 부모에게 “이 책 아이가 빌려오라고 했나요” 질문한다. 물론 아니다. 대부분 과학시리즈나 인물이야기, 학습용 책들이 그 부모들이 빌려가는 것을 보면 사실 질문할 가치도 없다.

셋째, 자료제공의 시간적 요소에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최근 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읽고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는가도 있겠다.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요즘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새로 나온 책들이, 아니면 현

3) 도서관의 목적은 그 도서관의 특성과 기능성에 맞추어서 자체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할 것이다. 뒷부분에 부평기적의도서관 자료현황을 명시하겠다.

4) Dana, J.C.와 Drury, Francis K.는 "Right book to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적당한 책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에-라고 말했다.



재 있는 책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맞을까. 이 문제는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 아이들 책이 사랑, 희생, 가족의 화목함 등 긍정적인 것만 묘사하여 마치 그것만이 최선의 길인 양 이끌어가지는 않는지. 이 문제는 출판의 경향과 아동책 작가들, 부모 등 많은 어른들이 관계와 함께 짚어야 할 사항이다.

책이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

나는 어린이도서관에, 아니 아이들 세상에 어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때가 많다. 아니 어른들이 있더라도 동심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으면 한다. 실제로 어른들이 아이들 세상에 끼어들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어른인데 책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보통 서점이나 기타 판매처에서 책을 사는 것은 어른들이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른들이 골라주고, 아이들이 골랐더라도 어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른마음에 드는 책으로 바꾸길 종종한다. 그래서 거의 80%는 어른입장에서 책을 산다. 이러한 점에서 그래도 어린이가 직접 책에 다가가는 공간은 도서관이 아닐까. 도서관은 그래도 책이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일 것이다. 나는 때때로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른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상상해 보곤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책을 보는 도서관만큼은 <책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러한 나의 엉뚱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골라서 원하는 책을 신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아이들 스스로 보고 싶은 책을 뽑아서 즐거움으로 책 세상을 만나는 날을 꿈꾸며...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생명의 아들딸이니라.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 사랑을 주라,
그러나 너희 생각을 주려고는 말아라.
저들은 저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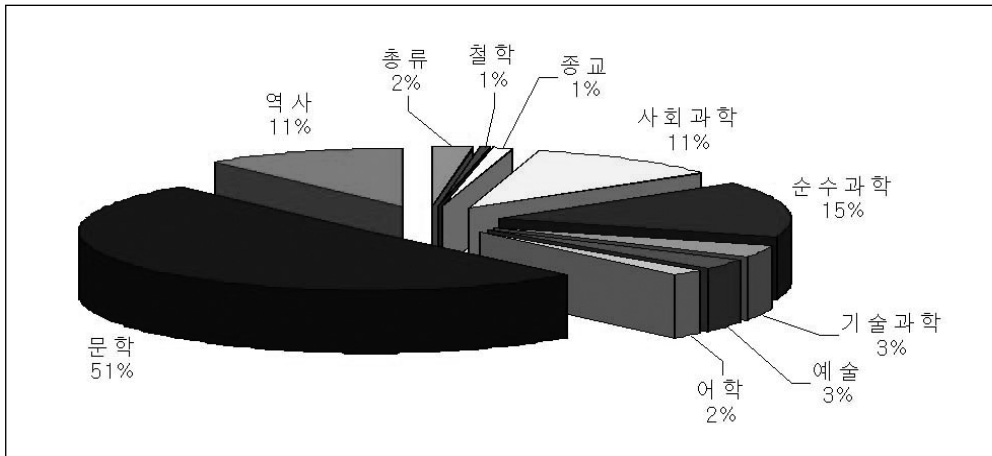
너희는 저들의 몸에 집을 주어라,
그러나 그 혼에까지 주려고는 말아라.
저들의 혼은 내일의 집에 산다.
그 집에는 너희는 찾아 갈 수가 없다.
꿈에도 갈 수 없다.

너희가 저들같이 되려 애쓰는 좋으나,
저들을 너희같이 만들려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생명은 뒤로 물려 가는 법이 없고,
어제에 머무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칼릴 지브란 [예언자] 아이들에 대하여 중

우리 어른들은 위의 시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책들도 아니 책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이 이러한 정신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서 보고 싶은 책을 골라서 즐거운 기분으로 책을 읽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꿈은 나만의 몽상일까?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부평기적의도서관에 있는 자료들과 부평기적의도서관을 이용한 아이들이 빌려간 책들의 순위통계를 10위까지 내보았다. 부평기적의도서관은 개관한지 11개월 되었으며 책 빌려주는 것은 9개월 되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림 1〉 부평기적의도서관자료현황

〈표 2〉 부평기적의도서관 책빌려가기 순위10위

순 위	서 명	저 자	회 수
1	신기한 스쿨 버스 키즈	조애너 콜 글	998
2	마법의 시간여행	메리 폼 어즈번 지음	661
3	만화 삼국지	나관중 원작	396
4	서유지	오승은 원작	287
5	신기한 스쿨버스	조애너 콜 글	285
6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조앤 K. 롤링 지음	223
7	화석 동물기	다카시요이치 원작	208
8	저요, 저요!	교원편집부 [편]	168
9	종이접기 작품나라	종이나라편집부 [편]	162
10	마법의 시간여행 지식탐험	메리 폼 어즈번 지음	160
	합계		3,548